





시선

사설

바닥으로부터의 의제 수렴  
혁신위 성패 좌우할 것

지난 3월 출범 예정이었던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춰진 오늘(11일) 정식 출범한다. 우리신문이 지난 제1602호 사설에서 언급한 바 있듯, ‘혁신’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이 조직은 향후 1년 간 교수, 학생, 직원 사회의 다양한 영역대를 포괄하며 대학 내의 전반적인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뀔 나카게 될 전망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아젠다, 그리고 이슈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진 혁신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일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에 부칠 주요 주제의 목록, 즉 아젠다를 갖기 마련이다. 아젠다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감안하면, 이 아젠다 세팅은 혁신위의 향후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위의 아젠다 세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흔히 ‘조직의 혁신’을 논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의사 흐름이다. 이것은 조직의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수월한 방식일뿐더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몇몇 천재적 리더십의 강력한 혁신 사례들 덕분에 일종의 후광효과까지 지니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 ‘조직의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의 성패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제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대학 내의 문제가 될 경우 이 ‘후광효과’는 위험한 سنگ리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사설에서도 얘기했듯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란 결국 그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제될 경우 그 혁신은 삶이 아닌 구호에 머무르게 된다. 각 단위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아젠다라면 그 것이 어떻게 논의되든 현실과 유리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의 혁신이, 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이뤄지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성격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내에 존재해온 많은 위원회와 협의체들을 상기해볼 때 이번 혁신위 역시 대표성을 띠는 몇몇 위원들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 사안들이 중심 안전화 되어 혁신 작업의 요체를 이룰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혁신위는 각 구성원 위원회에서의 의견수렴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나 상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의 확립 등 다양한 언론을 보장하여 구성원들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혁신’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수렴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견들이 혁신위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면, 혁신위가 세워놓은 ‘2019년까지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국제캠 운행 버스기사 학생 승객에게 폭언 및 승차거부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28. ~ 04. 0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 중앙도서관(중도) 좌석배정 모바일 어플의 좌석예약기능이 지난 1일부로 사용 중단됐다. **중도 좌석예약 시스템개선 계획, 예산 확보문제로 실현여부 불투명/대학주보 온라인, 2016.4.6** 중도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를 공고했으며 추후 시설과 어플 개선 뒤 예약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 어플의 기능은 기존 좌석이용자가 있음에도 예약가능 좌석으로 표기되거나 관내 좌석발급기에 예약된 좌석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도 사서과 장소영 과장은 “2006년에 설치된 게이트 등 제반 시설과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 미비로 완벽한 지원



이주의 주제 -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학본부

표절·학장·방관, 그리고 쌓이는 불신



최재원 (정기자)  
jankin1997@kh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 변정우 학장의 논문 표절’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15년 2학기 우리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변 학장이 2010년 2월 외부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표절로 판명됐다. 이후 서면공고를 통해 해당 논문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제 와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일까.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지난해 변 학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대학본부 측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조기퇴진에 따른 변 학장 개인의 불명예가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연말 인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구두약속을 남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학기가 시작됐지만 변 학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대자보를 붙여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서울캠 교수의회 측의 대자보 게시에, 호관대 교수들은 명예훼손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표절 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서면 경고를 받아 완료된 사안’이라고 한다. 또한 ‘교수 개개인이 스스로 지난 일들을 겸허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제는 우리 모두가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는 입장도 나와 있다. 즉, ‘다 지나간 일에 굶어 부스럼을 내느냐’는 내용의 자보가 붙은 셈이다.

기자는 일련의 ‘대자보 전쟁’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갈등 상황에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논문표절 건과 이후 처리를 담당했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 ‘원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이 같은 무반응은 마치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대학본부는 왜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는가. 일부 인사의 ‘대기 요정’ 한마디에 총장 승인까지 완료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벼워졌다. 당시 변 학장에 대한 심의와 징계결과가 합당했다면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한 후속조치가 나왔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자보에서는 교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짙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감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교수와 대학본부, 나아가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하락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라는 번듯한 기관을 세워놓았음에도, 그 안에서 끝을 내지 않고 사태를 미뤄온 대학본부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 굶어 부스럼 낸다 그 타박할 게 아니라, 애초에 가려운 곳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 불가했다”라며 “예산 편성을 충분히 받으면 게이트를 비롯해 도서관 사석화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학생증과 무관하게 각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좌석에서 퇴실과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 NFC나 블루투스 비콘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는 국제캠 교내 버스 기사들의 태도에 대한 성도가 줄을 이었다. 국제캠 교내 운행 버스 기사들의 폭언과 학생과 승객에게 서로 다른 태도를 비판하며 최근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글(**#경희숲\_13291, 2016.4.5**)과 하루에 한 번은 욕설과 폭언이 들렸다는 경험담, 학생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글(**#경희숲\_13293, 2016.4.5**)이 이어졌다. 매년 총학이 항의해도 문제는 반복되며 한 줄 서기 캠페인도, 임시정류장도 모두 실패했으니 대책이 무엇이었느냐는 글도 있었다. (**#경희숲\_13292, 2016.4.5**) 댓글 역시 ‘욕하는 기사님 신고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못 봤는데 최근 유독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난폭운전에 무정차 통과까지 기사님들 폐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캠퍼스를 누비는 뱃꼴을 즐기는 학생들의 글도 많았다. ‘서울캠 문과대 뒤쪽 뱃꼴은 그날진 환경 덕분에 정문과 본관 인근의 다른 뱃꼴보다 1주일 늦게 핀다’며 ‘지는 뱃꼴이 아쉽다면 문과대 뒤 벤치에서 늦은 뱃꼴을 감상할 수 있다’는 글(**#경희숲\_13294, 2016.4.5**)은 약 3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글에는 ‘문과대 뒤로!’, ‘뱃꼴을 더 볼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달렸다. 한편, ‘공대 앞은 뱃꼴이 안 핀다’는 슬픈 댓글도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식물생식기 하나 보냈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글(**#경희숲\_13339, 2016.4.7**)은 597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댓글로 ‘나의 낭만이 무너졌다’, ‘이 분 배운신 분’, ‘겉뽕꽃은 수술이 앞으로 변한 경우이니, 불구자입니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경희숲\_13278, 2016.4.4**) ‘수업 끝나고 혼자 평화의 전당부터 미대까지 산책을 했다’며 ‘경희대 오길 잘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316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휴학중동마저 없어지는 풍경’,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면 좋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우리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맡기지 말자

세시봉

이성민 <뉴스팀장>



지난달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후보자들의 유세는 막장 드라마다.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명 ‘읍소작전’이라 불리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멍석을 깔고 공천 파동에 대한 사죄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100번의 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뿐만이 아니다. “용서해 달라”, “정신 차릴게요” 등 일회성 발언을 남발하며 유권자들에 감정으로 호소하는 후보가 한 둘이 아니다. 후보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쇼’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인 4월 12일까지 계속될 판이다. 당연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선거철에만 작아지는 정치인  
보지않기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지난 18대 총선을 보면 20대 초반과 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32.9%와 24.2%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았다. 19대 총선 역시 20대 전,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45.4%, 37.9%로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의 젊은 층 투표율은 올랐으나 그래도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은 동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 제20대 총선 재외투표에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보다 4.3%가 줄어든 수치다.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중 정치적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선 지난 총선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후보가 의원이 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사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선거 유세 기간에만 작아지는 정치인을 보지 않기 위해선 그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그들은 젊은 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투표율을 높인다면 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만 맡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미래에의 책임이란 투표에의 책임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4년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하자.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은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공학계열 인원 늘어나고 인문사회·예체능 줄어든다

신설단과 대학 정원 및 이동계획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제출한 프라임사업 계획안에 따라 각 단과대학은 2017년부터 대규모 정원이동을 앞두고 있다. 프라임사업이란 사회수요가 많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거나 증원하고, 사회수요가 적은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미래융합공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을 신설해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을 개편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4월 중순 교육부의 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1위로 선정된다면 연간 최대 300억 원, 2위부터 9위까지는 연간 150억 원을 3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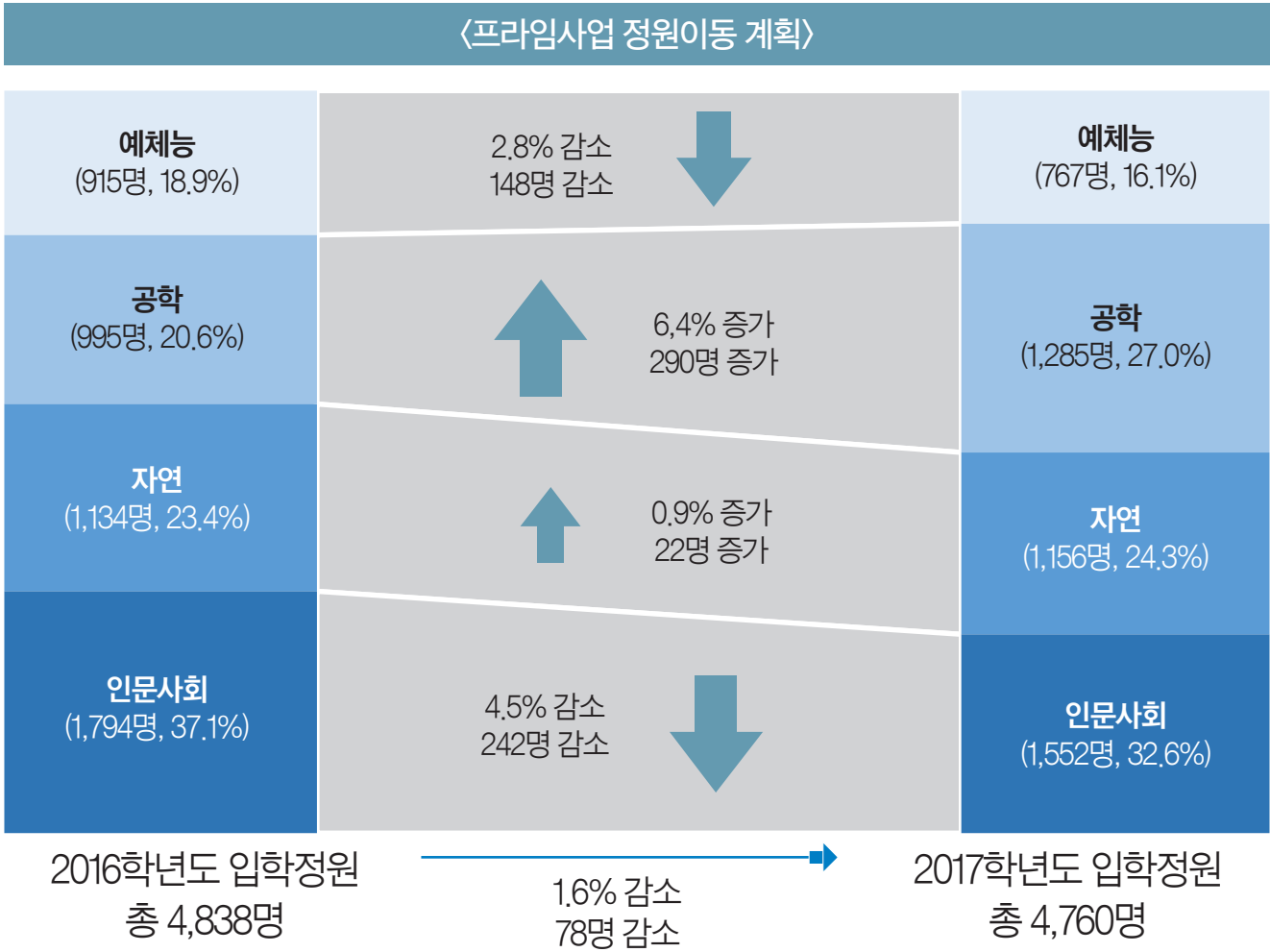
## 내년부터 계열별 정원 이동

### 공학계열 정원 290명 ↑

계열별 인원 변화만 따져보면, 공학계열 정원은 2016년 995명에서 2017년 1,285명으로 기존보다 287명, 비율로는 6.4% 증가한다. 자연계열 정원은 같은 기간 1,134명에서 1,156명으로 22명 늘어나며, 의예과와 치의예과 정원이 포함되었다. 반면, 예체능 단과대 정원은 915명에서 767명으로 148명, 인문사회 계열은 1,794명에서 1,552명으로 242명 감소한다. 총 정원은 4,838명에서 4,760명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각각 39명씩 감소한다. 학문분야 간 정원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의 변동은 크지 않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융합공학대학과 바이오융합대학의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인 미래융합공학대학에는 5개의 학과가 신설되고 전자정보대학 소속이었던 컴퓨터공학과가 이동한다. 기존 컴퓨터공학과는 7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며, 신설학과 입학정원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60명, 융합전자공학과 57명,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과 40명, 융합기계시스템공학과가 57명이고, 데이터과학과(명칭 논의 중)는 85명이다.

자연계열인 국제캠 바이오융합대학은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정원을 조정한다. 국제캠 생명과학대학이 바이오융합대학으로



개편되며, 의생명과학과 65명, 그린바이오공학과 60명, 식품생명공학과 47명, 바이오헬스산업학과에 60명이 배정된다.

신설되는 데이터과학과(명칭 논의 중)와 바이오헬스산업학과는 각각 국제캠 미래융합공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소속이

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캠에 위치해 해당학과 정원 83명과 60명은 서울캠 정원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생명과학대학 졸업자는 모두 이학사였지만, 바이오융합대학으로 개편될 경우 식품생명공학과 졸업자는 공학사가 되고 나머지 학과의 졸업자

는 기존과 같이 이학사로 유지된다.

## 6개 학과 신설, 5개 학과 개편

### 총 입학정원은 감소

공학계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조정을 위해 타 학과에서는 입학정원이 감소된다. 2016년 대비 2017년 입학정원을 보면, 서울캠은 프라임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보건의료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줄어든다.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는 정원을 유지하고, 의예과 치의예과가 각각 33명, 24명 증가한다. 이과대학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프라임사업 명목으로 27명 늘어난 것 이외에 지리학과가 2명, 정치외교학과가 2명, 사학과가 1명 증원될 뿐, 나머지 모든 학과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9명까지 감소한다. 경영학과, 자율전공학과가 38명, 39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고, Hospitality경영학부, 경제학과, 영어학부, 기악과, 무역학과, 관광학부,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가 11~17명 단위로 인원이 조정된다. 앞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학과는 1명에서 8명까지 입학정원이 감소한다.

특히 자율전공학과는 2016년 104명의 정원이 2017년 65명으로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영학과 역시 38명이 줄어들어 233명에서 195명으로 감소한다. 경영학과의 감소분이 16%인 것에 비해 자율전공학과는 무려 37.5%에 이른다.

## 공학계열 제외 대부분 학과 정원 감소

### 자율전공학과 가장 많은 39명 감소

국제캠 또한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신설학과 이외에 대부분의 학과에서 정원이 조정된다. 2016년 2,421명에서 2017년 2,382명으로 39명 줄어들고, 신설 단과대에 배정될 미래융합공학대학 242명, 바이오융합대학 17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15% 선을 맞춰 정원이 감축된다. 단, 일부 비이공계 단과대학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정원 감축이 예정된 바 있다.

미래정책원 측은 정원이 조정되는 학과를 위한 대책으로 소수 정원 학과의 전공과목 폐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인원 감축에 대해 자율예산 배정 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201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일정 안내

구분	내용	일정
내국인 대상 신(편)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4.11(월) 10:00 ~ 2016.04.20(수)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6.05.21(토) 10:00
	합격자 발표	2016.06.17(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 신입학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6.03.28(월) ~ 2016.04.29(금) 17:00 까지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2016.04.13(수)은 공휴일임
	합격자 발표	2016.06.10(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07.01(금) ~ 2016.07.07(목)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 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1면에서 이어짐

신 원장은 “프라이머리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발전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프라이머리는 우리학교 발전 계획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라이머리를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교비로 발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면 목적지는 같지만 시간이 그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측은 우리학교의 프라이머리안 중 다른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3트랙 전략’으로 설명했다. 이는 커리큘럼에 있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는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전략으로, ▲Humanity&Foundation 트랙, ▲Core 트랙, ▲Add On 트랙이 그것이다. Humanity&Foundation 트랙에서는 미학, 우주학, 인공지능학과 같은 기초학문을 다룬다. Core 트랙에서는 좀 더 심화된 전공학문을 다루며, Add On 트랙에서는 기초학문과 전공학문 외에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자기주도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부총장은 “얼마 전의 알파고, 이세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기술력보다도 창의력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운을 떼며 “학문적 기초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미래학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본부 측과 양 캠퍼스 총학생회 간의 협의 과정은?

지난 4개월 간, 학생대표와 대학본부는 프라이머리에 대해 수차례의 소동위원회와 준비위원회, 비공식 만남을 가져왔다. 프라이머리 논의 초기부터 서울캠 총학은 사업 참여 반대, 국제캠 퍼스(국제캠) 총학은 이원화 문제 해결을 전제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애초 다른 입장을 취했다. 사업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지금까지 서울캠 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국제캠 퍼스(국제캠) 총학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서울캠 총학은 사업 논의 초기부터 SNS와 물리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여론을 표해왔다. 논란은 사업 제안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단과대학에서 학교 측의 갑갑적 서명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부총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일부 단과대학 학장님이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장은 “현시점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며, 주어진 시간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외부 언론에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일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학교 프라이머리 사업 계획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대학 측은 난색을 표했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서울 총학이 인식하는 프라이머리 사업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시간의 촉박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변화 사항에 대해 논의해갈 것”이라며 “교수회의, 노동조합, 국제캠 총학, 대학본부 모두 합의를 이뤘는데 (서울캠 총학의 입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측은 기본적으로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집중해 대화를 이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 마지막 집결이 된 제4차 소동위원회에서도 국제캠 김병경(체육학 2009) 총학생회장은 “국제캠 학생들은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조건 하에 프라이머리 사업을 찬성한 것”이라며 “이공계열 학과 증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후에도 서울캠에 위치한 이공계열 학과의 차후 국제캠 이전에 대한 서면약속과 이원화 기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국제캠 총학은 대학본부 측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안을 수용했다. 신 원장은 문제가 된 ‘데이터과학과’와 ‘바이오헬스산업학과’에 대해 전자는 사회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효과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약학과 의 학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필요해 서울캠에 위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명칭의 경우에는 커리큘럼 비교를 통해 중복학과 논란을 해소했으며, 데이터과학과를 예로 들어 이는 경영대학과 이과대학의 성격에서 신설된 학과이지만 이원화 문제를 고려해 국제캠 소속 ‘미래융합공

학대학’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결과적으로 제안서에 합의 서명을 했지만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프라이머리 사업을 통해 약속받은 이원화 문제 해결 ▲명확한 이원화 체제를 위해 학문별 통합과 캠퍼스 특성화 ▲국제캠 다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와 관련해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진 우리학교의 유사학과 문제와 분·분교 논란 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댓글 여론을 모두 읽어보고 있다는 신 원장은 “우리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중복학과가 없지만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캠퍼스 간에서 (논란되는 학과들이)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학과가 인가돼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10~20년 전에 학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우리학교의 아픈 상처를 프라이머리 사업으로써 해결해 하나의 학교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서에 포함된 ‘서울캠의 이공계열학과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에 대해 신 원장은 “신설되는 이공계열 학과의 소속을 국제캠 단과대학으로 편성했다”며 “한 단과대학 내에서 중복학과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에도 학과의 성격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에서 회자된 이원화 사안 관련 입장과 프라이머리 사업 이후의 계획은?

신 원장은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런던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캠퍼스가 시내에 분포돼 있어 원하는 전공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학교의 경우 국제캠은 공학계열의 인프라를 토대로 발전하고 서울은 인문·사회계열로 발전하되, 이공계열 신설학과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교수들이 서울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진정한 이원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원장은 캠퍼스 특성화와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분법적 구분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위기 때 마다 제시해왔던 ‘중장기적 해결방안’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신 원장은 “유사학과 정리에 관한 문제는 대학본부 측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도책을 생각한다”며 “프라이머리 사업에 선정됐을 때 생길 자금을 통해 국제캠 이공계열에 대한 투자 이뤄질 것인데, 이는 교수들의 연구비 증액과 시설 개선으로 이어져 이공계열 학과 간 이동에 있어 장기적으로 학과 간의 자발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작년 말 논란이 됐던 외국어대학의 서울캠 이전에 대해 신 원장은 교지화박물관과 학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설될 학과의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캠퍼스 내 신설학과 수용공간에 대해 신 원장은 “서울캠은 Space 21사업의 일환으로 이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건물을 짓고 있어 공간 부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문제는 국제캠”이라며 “국제캠에 새로운 건물이 12월 착공 예정이고 2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학과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멀티미디어관과 생명과학대학건물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6.07.04~2016.07.29,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i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 4월 셋째 주(04.11~04.15) 취업진로

###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서	일시
동부화재 채용설명회	개인영업, 보성관리, 법인영업, 인사팀, U/W, 상품영업, 자선운동, 경영지원	4.12(화)
상가포로 현지 회사 취업설명회		4.15(금)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학)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 기타 사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조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 ● 취업특강

특강제목	일시
조직이해와 인사지원서 작성요령 (이정호 교수)	4.12(화) 12:00~14:00
마케팅 실무 - 상품기획 및 브랜드 전략 (최재관 교수)	4.12(화) 15:00~17:00

### ● 취업진로도 맞춤형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 제법대대학 107-2호취업
집단 상담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상기 컨설턴트	4.15(금) 16:00~18:00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조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gc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서울캠 퍼스 취업진로지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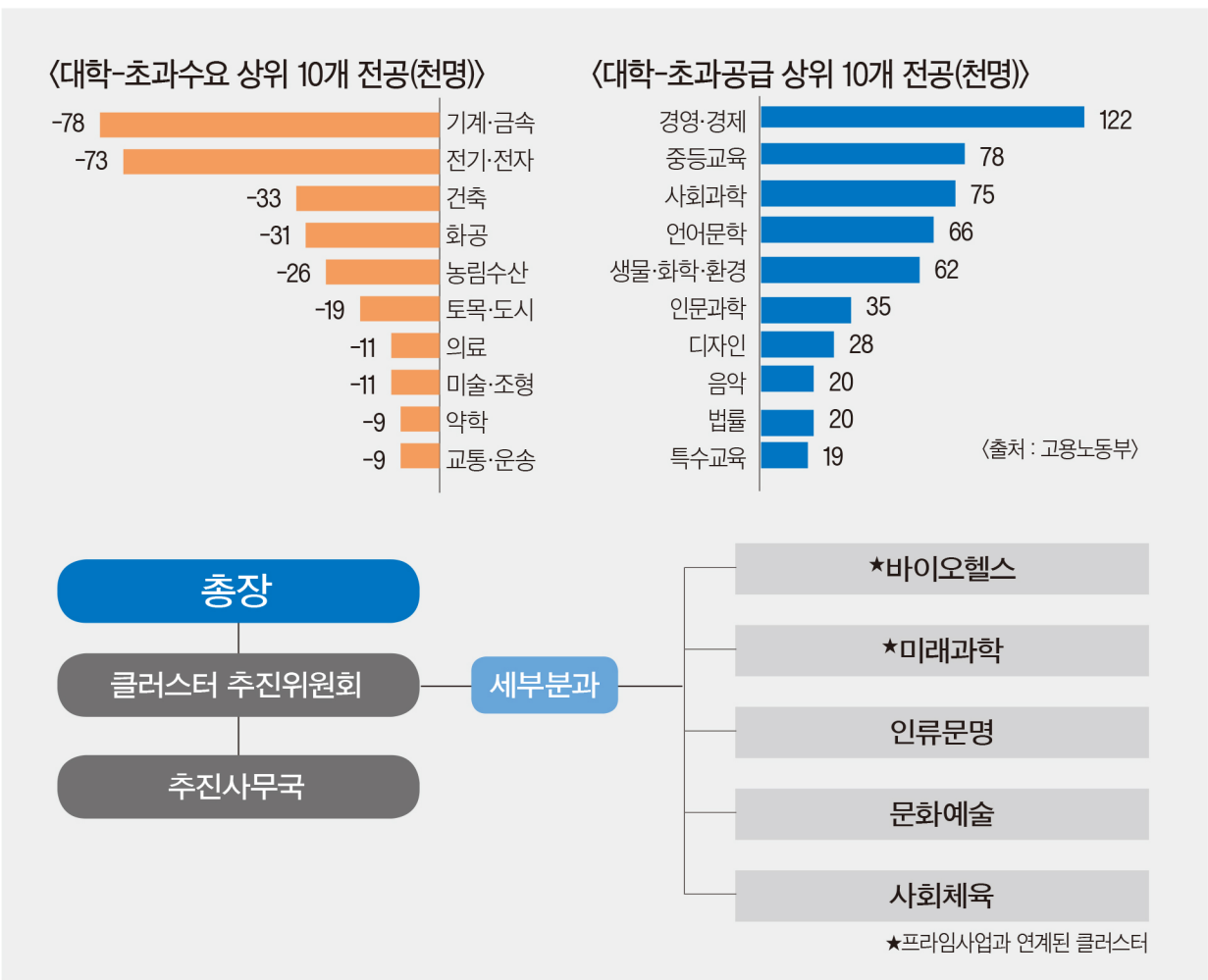
# 학문간 연계 강화 ‘전략’, 프라임사업이 일부 담당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프라임사업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지난 2012년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서 학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사업으로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제안됐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대학의 본질과 가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 요구’, ‘IT 기술발전에 의한 시공간 경계 소멸’, ‘고도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가진 새로운 연구 과제 제시’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미 세계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Global Health Institute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도 유수 대학들이 글로벌 헬스, 나노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융복합 교육·연구 분야의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 우리학교는 경희 연계협력클러스터를 추진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미래과학 클러스터·인류문명 클러스터·문화예술 클러스터·사회체육 클러스터 등의 5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클러스터 사무국의 설명이다.

5개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 융복합/심화 연구그룹 + 융복합 아젠다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내·외 융복합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주제와 연계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융복합 분야를 육성하고 전략적인 교수 충원과 석학 영입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5개 클러스터 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이번 프라임사업과 연계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이번 프라임사업에도 포함된 바이오융합대학 설립으로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의생명과학과·그린바이오공학·식품생명공학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며, 서울캠퍼스에는 바이오헬스산업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중 바이오헬스산업과 교육과정(안)에는 건강노화, 임상영양 분야 교과목의 추가와



의료기기 분야의 공학관련 교과목의 축소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지원센터 신청 준비와 흥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에 입주할 센터 및 스타트업벤처 발굴(2016년 7월에 선정 예정)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의 한계극복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현재가치와 함께 미래가치도 지향하는 교육·연구의 필요성으로 대두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에 따르면 흔히 경영, 사회과학으로 대표되는 ‘문과’ 학과의 경우 많게는 약 12만 명에서 1만 9천명까지 초과되지만 기계·금속, 전기로 대표되는 ‘이과’ 학과의 경우 많게는 7만 8천명에서 9천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대학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육·연구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세계적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과학 클러스터 실행계획 컨설팅 예산 확보 추진과 이 분야 관련 석학급 인사면담 추진,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들을 계획하고 있다. ‘인류문명 클러스터’는 ‘교육, 문화, 문화예술 사회과학 등을 포함한 미래학 생명과학 등 인간의 지식 영역 전반에 걸친 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인류문명 클러스터 회의가 개최됐으며 올해 1월에는 총장 주재로 존 아이켄베리 교수(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해 인류문명 클러스터 논의도 이루어졌다. 추진사항으로 미래가치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실천의 접근 방식을 정리해나가는 기초적인 작업을 위한 기획위원과 연구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클러스터’는 교육·문화·광관·의료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핵심가치로 하며 지난 3월 2일, 4월 5일 1,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클러스터 방향 설정, 준비위원회 구성과 위원 추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진방향으로 문화예술 클러스터 교내 교수 및 외부초빙인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발족과 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체육 클러스터’는 미래 인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제시됐다. 스포츠를 통한 개인가치 창출,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미 발견 등이 핵심가치이다. 연계협력 클러스터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체육 클러스터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라며 “앞선 4개의 클러스터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은 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략적인 추진(안)에 따르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과 스포츠 케어 프로그램 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장소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발고해 주십시오.  
당 입구에서 발급, 배부

	장소
	청운관 B117호
	청운관 B117호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신청방법
356호 취업진로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성적/상담, 메뉴에 서 신청 (컨설팅토론 일 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

해서 지참(필수)

인해 주세요

www.facebook.com/khujob

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저

2016- 1학기 사회진출지원프로그램

4월29일(금)

17:00~18:30

학생회관 2층 다목적실

“공모전”  
아는만큼 성공한다.


- 커리어개발을 위해 공모전이 필요한 이유

- 나에게 공모전이란

- 성공하기 위한 공모전 준비방법

- career.khu.ac.kr로 신청 -

취업진로지원처



나도 이제 첫 출근 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공채대비  
모의 면접 및 면접특강

❖ 접수일자 : 2015. 4. 11~ 선착순 마감

❖ 일시 : 4. 27(수) / 5.4(수) / 5.11(수) 중 택

❖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career.khu.ac.kr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고가의 교재비 부담, 불법 복제 주요 원인 되기도

교재비에 부담 느끼는 대학생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이다정(철학 2014)양은 새 학기를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 수업교재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학기에 15만 원 가량을 교재비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양은 “주말 알바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나로서는 교재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양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학기 초에 드는 교재구입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신문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재구입비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69명)이 ‘부담스럽다’에, 40%(55명)가 ‘매우 부담스럽다’에 답해 총 90%가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구입해도 활용도 떨어져 ‘아깝다’ 느끼는 학생 많아

학생들은 왜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한 학기에 학생들이 대체로 6개의 과목을 수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강 후 첫 달에 6권 내외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 셈인데, 전공서적이나 원서의 가격은 3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하기에는 ‘한정된 수량과 대여기간’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 수업교재 구입을 위해 총 얼마를 지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만원 이상~15만원 이하’에 답한 응답자가 44%(59명)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49%(67명)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에 답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교재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재를 구입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재 활용도가 낮은 수업은 교재를 사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교재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주관형 질문에서 ‘교수자가 교재를 필수적으로 지참하라고 해서 구입했지만 실제 수업은 PPT 위주로 진행되는 경



우, 한 학기 동안 교재의 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까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다른 응답자는 ‘교수자가 자신의 저서를 교재로 선정해 구입하도록 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사실상 강매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바로 무단 제본이다. 교재비를 아끼기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본하거나, 여러 명이 책 한 권을 구매해 무단으로 제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행위지만, 매년 개강철이면 학교 근처 복사 전문점은 제본을 하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복사 전문점에서 적발된 불법제본 건수는 61건에 달한다. 실제로 ‘수업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제본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104명)가 ‘있다’고 답

했다. 제본 교재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책값이 비싸서’에 답한 응답자가 65%(72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가에서는 중고서적 거래가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이번 학기에 중고전공서적을 시중가격 대비 40~70%에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열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별:자취’ 사이트를 통해 중고 교재의 판매, 구매를 중개하고 있다. 판매자는 사이트와 연결된 구글독스에 판매하려는 교재를 등록하고, 구매자는 올라온 교재 리스트 중 구매하려는 교재를 선택해 운영사무국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학우 여러분의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특히 교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 3월 한 달간 약 100권 이상의 교재가 거래되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중고서적 거래도 활발하다.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인 ‘세연넷’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는 새 학기면 전공, 교양교재 거래 글이 쏟아진다. 실제로 ‘고파스’에서 중고 교재를 구입해본 적이 있다는 정유선(고려대)양은 “개강 철에는 교재 거래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며 “책이 많이 올라오니까 원하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중고서적 거래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대 대학의 사례처럼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성화된 중고서적 거래 관련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없어서 지인에게 책을 물려받지 않는 한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게다가 중학교, 글쓰기, 시민교육 교재의 경우는 매 년 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우리도 교재장터를 개최했던 적이 있지만 교재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중학교와 교재의 반값쿠폰을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물론 교재구입비가 그렇게 아까워해야 할 부분이라는 시선도 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재를 필수로 지참하게 하는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총 없이 전장에 갈 수 없는 법이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책 없이는 학문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다른 데 쓸 돈을 아끼고 미리 돈을 저축해두면 충분히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는 ‘술 마실 돈은 있고, 책 살 돈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재사용의 목적이 ‘구입’이 아닌 ‘탐독’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 교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공감한 대학가의 교수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는 ‘빅북(Big Book)’운동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  
빅북운동 대안으로 떠올라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해 무료로 교재를 보급하는 운동이다. 주로 ‘경제학원론’, ‘통계학개론’등의 기초교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내려 받는 방식이다. 원하는 경우 제본하여 사용해도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운동을 주도한 빅북운동본부의 대표 조영복 교수(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대학의 지식창조 활동의 결과물들은 이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걸림돌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빅북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은 공유될수록 혁신적 창조의 힘을 얻는다. 대학에서 지식 공유의 첫 걸음은 학생들이 책을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다. 도서관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재로 사용되는 책을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구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빅북운동’과 같은 대안을 모색한다면 지식창조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6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방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아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특별전정 일정

- 원서접수 : 2016. 4. 18(월) ~ 5. 6(금) 17:00
- 전 형 일 : 2016. 5.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전형료 면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법학과 / 국제개발법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법학과에 한함)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 예정자  
4.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5.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6년 04월 18일(월) ~ 05월 11일(수) 17:00 (우편 수신기준)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6년 05월 21일(토) 시간 추후공지  
해외 거주자 인터뷰 : 2016년 05월 18일(수) ~ 05월 20일(금) 기간 중 개별안내 (예정)  
합격자발표 :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예정)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직거래서 작성 포함)  
· 공인영여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공인영여공인 경력서 1부 (경력, 환경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통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본인영향 사진 1매 (3cm×4cm)  
· 전월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 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학금제외 : 하나은행 906-91 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여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공인영여공인 경력서 1부 (경력, 환경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통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본인영향 사진 1매 (3cm×4cm)  
· 전월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 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학금제외 : 하나은행 906-91 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여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공인영여공인 경력서 1부 (경력, 환경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통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본인영향 사진 1매 (3cm×4cm)  
· 전월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 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학금제외 : 하나은행 906-91 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여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공인영여공인 경력서 1부 (경력, 환경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통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본인영향 사진 1매 (3cm×4cm)  
· 전월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 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학금제외 : 하나은행 906-91 002-76604  
※ 해당자에 한함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 ~ 50%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100 ~ 25% 지원  
☐ 가사사 입사자 권유대상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2016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장 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일 정

훈련 연	훈련 일자	인 원	소 속	
향방 기본훈련 (8시간)	계	2,943	교수, 교직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공/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문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5. 9(월)	748		
	5. 10(화)	744		경영대학, 음악대학
	5. 11(수)	737		약학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5. 12(목)	714		간호과학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6. 28(화)	신청자		위 5. 9(월) ~ 12(목) 대상 중 신청자(4.7명) 현재 138명 신청 중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으로 공지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분(청량리/휘경동), 23분 / 1~4(천호동), 93분(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동동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약도참조

● 참고사항

가. 간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과

나. 학과·학년 구분 없이 동시 실시 및 성별별(가·다·손) 학급편성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오대, 바늘, 고무링)불량자 결석처리

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소지자 결석처리

마. 지각자 귀가조치-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사.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아. 훈련편성(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말 '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출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통행)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

다. 중·고등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중·고·대학생

라. 개인사정으로 방학 중인 6. 28(화) 일자에 방을 예비군은 4. 28(금)까지 연대본부로 방문하여 신청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총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전화로 반드시 수정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스포츠

주력선수 줄부상에 ‘울상’ 짓는 농구부

위기의 농구부 집중조명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지난해 우리학교는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12승 4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해 4강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센터의 부재에도 우리학교 특유의 속공 플레이와 압박 수비로 ‘센터 없는 농구’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학교는 4학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했다. 주력 선수들의 부재 상황에 처한 우리학교 농구부를 조명해봤다.

지난 5월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벌어진 한양대와와의 경기에서 67-65로 승리하며 동국대, 중앙대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24일 조선대를 70-59로 제압하고 3월 30일 연세대에 79-95로 패해 2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우리학교 농구부는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위기 국면을 맞았다. 센터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관정을 받았던 바 있다. 이번 시즌 들어 김철욱 선수는 복귀했지만, 4학년이자 주 전력인 가드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포워드 이성순(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줄줄이 부상을 당해 향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김철욱 선수의 복귀는 우리학교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남은 선수들이 메울 수 있을 지가 이번 시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우리학교의 선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신체조건이 우수한 포워드 전력이 부족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적 연세대를 만나며 픽앤롤 2:2 공격에 취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경기를 참관한 맹상훈 선수는 “팀에 경기를 운용할만한 사람이 없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 같다”며 “경험 부족이 큰 패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학교는 연세대전의 부담을 극복하고 한양대를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전반 이민영(스포츠지도학 2014), 윤영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번갈아가며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선전했다. 신입생 권혁준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농구부가 2016 전국 남녀대학농구리그에서 연세대에 79-95로 패했다

(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와 최재화(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도 악착같은 수비로 한양대를 막아섰다.

포스트맨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는 골밑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신입생의 저력을 보여줬다. 한양대는 특유의 ‘육상 농구’로 꾸준히 득점하며 우리학교를 몰아붙였지만, 끝내 김철욱 선수의 자유투가 승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생각보다 컸다. 농구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국 감독은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고학년 선수들이 자리를 비워 힘든 상황”이라며 좁은 포워드 기용 폭, 조직력 부족 등을 현재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리학교는 현재 포워드 최승욱, 이성순 선수 이외에도 이진희(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역시 동시에 부상을 당하며 센터 박찬호 선수가 포워드로 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때문이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더블 포스트 플레이의 경우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가

지지만 백 코트의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미스매치가 자주 발생하는 반면, 싱글 포스트 플레이는 가드 기용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속도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신장이 낮아져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감독은 “이번 시즌 신입생들의 활약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우리학교 농구스타일을 익히지 못해 조직력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2, 3학년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감독은 향후 팀의 전망에 대해 “이번에 골밑 전력이 충원돼 팀이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덧붙여 “선수들이 우리학교가 기존에 해왔던 속공 플레이, 빠른 공수 전환, 압박 수비에 더욱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주장 맹상훈 선수는 “저학년 선수들이 시즌 전반기 동안 기량을 쌓아 후반기에는 4학년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한다”고 주문하며 “특히 신입생 선수들의 역량이 특출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승하는데 도움 되고파”

2016 우리학교 농구 이글 ‘루키 3인방’ Q&A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등학교 때에는 슈팅 가드였다. 대학에 와서 이민영, 정지우 선수와 교대로 포인트 가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슈팅 가드로 활동했던 경험 덕분에 중장거리 슈팅에 강하고 발놀림이 빠른 편이다. 그러나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처음 맡아서 볼 배급과 경기조율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권혁준 선수(가드·178cm)

Q. 앞으로의 포부 한 마디 부탁한다.

A. 지난해 손목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힘들었던 5개월을 보내며 코트 위로 복귀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다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남은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학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우승까지 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

Q. 본인의 포지션과 장단점을 알려 달라.

A. 고교 시절부터 포인트 가드였지만,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선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수를 병행했었다. 물론 지금은 주로 포인트 가드 역할만 맡고 있다. 감독님께서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운영능력은 칭찬해주셨지만 실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셨다. 수비가 약해 강한 압박 수비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Q. 대학에 와서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예전에 비해 운동량이 늘어 적응하는데 고생을 했다. 순발력,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힘든 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기본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최재화 선수(가드·180cm)

Q.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A. 지난 3월 ‘제32회 MBC배 수원시 전국대학농구대회’ 예선전에서 중앙대에 패했는데, 돌아오는 11일 중앙대전에서는 꼭 이길 것이다. 중앙대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꼭 고학년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남녀농구리그 전반기 3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

Q. 현재 센터가 아닌 포워드로 출전 중이라고 들었다.

A. 원래 센터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김철욱 선수의 복귀와 포워드 선수들의 부상으로 파워 포워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워 포워드로서 돌아와 외곽 수비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 운동량이 많아진 점은 힘들다. 그러나 프로로 진출할 때는 포워드로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포워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박찬호 선수(센터·201cm)

Q. 지금까지 경기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해 달라.

A. 최근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며 몸싸움에 약해진 것이 아쉽다. 또 급한 성격으로 여러 번 수비에 실패했다. 우리학교는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악착같이 수비하는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 리바운드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개교 67주년 기념

2016 경희 ‘웃는 사자상’ 공모  
2016 KH Laughing Lion Award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경희인을 추천해주시요. ‘웃는 사자’와 함께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16년 4월 11일(월)~5월 2일(월)
- 대상: 경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부문: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체육
- 시상인원: 0명
- 시상내역: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 추천방법: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본인 및 타인 추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pr@khu.ac.kr)  
- 양식: 경희웃는사자상 추천서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추후공지
-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4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